“삶에 바탕 두지 않는 희곡 대사는 공허”

정범종 희곡·창극집 ‘봄날의 새연’ 출간
경향신문 신춘문예 등단, 5·18 우수희곡상
상감청자에 매료돼 문학의 길 들어서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밥벌이’와 연계될 때는 더더욱 그렇다. 취미 삼아 글을 쓰는 사실만으로 직업을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작의 세계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나름의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

보성 출신 정범종 희곡작가에게도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다. 한 순간에 필이 꽂히게 된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다. 그가 최근 ‘봄날의 새연’이라는 창극·희곡집을 펴냈다. 이런 저런 글을 쓰면서 살아온 이력답게 그에게선 얼핏 문향의 향기가 배어 나왔다.

사실 소설과 시와 달리 희곡(창극작품을 포함해)은 문학의 주류 장르가 아니다. 어느 분야든 주류가 아니고서는 조명을 받기 힘들다. 설령 주류 장르라 해도 오롯이 창작을 하거나 창작과 연계된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정 작가가 희곡에 빠진 계기가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남대 재학 시절 이태호 교수의 ‘한국미술사’”를 수강하면서 우리 문화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당시 이태호 교수는 ‘이 나라 예술의 한 정점이자 인류 예술의 한 정점이 바로 상감청자’라고 했어요. 그 상감청자라는 말에 필이 꽂혔던 거죠. 무엇보다 그 상감청자가 우리 지역 강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 무렵 중아양트홀(지금의 호암아트홀)이 건립됐고, 장막극을 모집했다. 정 작가는 상감청자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상감청자를 소재로 장막극을 쓰기로 결심한다. 희곡을 선택한 것은 “어릴 적 아동극에 출연했고, 자주 연극을 봐서 그런지 다른 장르보다 가까웠다는 점”이 이유라면 이유였다.

당시 그는 국보 68호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을 소재로 글을 썼다. 두 달가량 써서 작품을 완성해 투고했지만 발표일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달 가량 지난 후에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발 옆에 신문지 조각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한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제가 쓴 작품이 최종심에 거론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것이 그를 문학의 길로 이끌었다. 사실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상감청자’에 매료된 후로 글을 쓰는 직업을 갖게 됐고 그렇게 틈틈이 창작을 했다. 이후 경향신문 신춘문예(1986년) 희곡부문에 ‘새연’으로 문단에 나오게 된다. 지난 2007년에는 5·18기념재단 우수희곡상에 ‘오방색양말’이 선정됐으며 제4회 4·3평화문학상 소설부문을 수상한다.

“그동안 써온 창극과 희곡을 모아 출간하게 됐습니다. 막혔던 데가 터지는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작품집을 발간하는 작가라면 느끼는 동일한 감정일 거예요.”

정 작가는 지역 공연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랬다. 사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창극과 연극이 활발하지 않는데다 작품집 출간도 뜸하다. 이번 상황에서 창극이나 희곡과 관련된 창작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작품집에는 1부에는 창극 작품이 두편(도미부인과 개루왕, 정다운 한소리)이 담겨 있고, 2부에는 희곡 작품 4편(봄날의 새연, 그 오월의 오방색 양말, 불발탄이 터질 때, 마스크 쓴 개돼지들)이 수록돼 있다. 창극과 희곡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무대에서 공연되는 공통점이 있다.

창극 ‘도미부인과 개루왕’은 백제 실존 인물인 도미부인과 당대 융성을 이룬 개루왕의 이야기이며 ‘정다운 한소리’는 화공인 정다운과 소리꾼인 한소리의 사랑을 모티브로 했다.

희곡 ‘봄날의 새연’은 맑은 날씨에 새연을 날린 아이들에게 엽총을 난사한 경비원과 이를 벌하려는 아주머니가 경찰서에서 벌이는 싸움을 그렸으며, 막개발 실상을 고발하는 ‘불발탄이 터질 때’는 지금은 터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터지기 마련인 ‘불발탄’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저자는 창작의 모티브를 지역에서 찾는다. “내가 발을 딛고 선 고향 땅”은 무궁무진한 영감의 원천이라는 의미다. 백제에 관심이 많았기에 ‘도미부인’을 알았고 이를 형상화했다. 특히 창극은 판소리가 바탕이기에 사설과 장단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그의 텃자리 보성은 판소리와 수묵화가 성행했던 곳이다. 창극을 쓸 때 “국악 공연에 자주 가고 국악방송을 들었다”고 한다.

희곡을 쓸 때는 무엇보다 대사에 심혈을 기울인다. 대사는 느낌이 있고 힘이 있어야 좋은 대사라고 할 수 있다.

“생생한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하지요. 삶에 바탕을 두지 않는 대사는 공허할 뿐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연극에서 배우는 작가의 대사를 가지고 표정과 몸짓을 만드니까요.”

작가로서의 계획을 물었더니 그는 “매일 일정량 이상의 글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일정한 양의 글을 쓰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적잖은 울림을 준다. ‘글은 많이 쓰는 사람 편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름다운 해금 선율로 늦가을 아쉬움 달래다

합주단 ‘이현’ 연주회 20일 미로센터

가을의 끝자락, 해금 선율로 아쉬움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해금합주단 이현(회장 김해숙·사진)의 세번째 정기연주회가 20일 오후 3시 미로센터(광주시 동구 궁동)에서 열린다.

‘꿈의 날개 피며 날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 해금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행복의 씨앗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공연은 1부 ‘떨림’과 2부 ‘그리움’으로 나뉘어 열린다. 1부는 ‘대장금’, ‘홀로아리랑’으로 시작해 ‘꽃의 동화’, ‘가시버시사랑’ 등을 연주한다. 2부에서는 해금 2중주로 ‘설장고를 위한 해금2중주’와 ‘상주함창변주곡’을 들려준다. 초청 연주 무대에는 생황연주자 신선민이 무대에 올라 생황연주를 선사하며 초청강의 시간에는 이광혁 호남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인문학 강연을 펼친다.

공연 기획과 지도는 고영란이 맡았다. 무대에는 이현 단원인 김해숙·고영자·김은주·박재현·김지희·윤승자·채명자·최귀자·최장완·진희경 등과 장고 박상호가 오른다.

한편 지난 2018년 결성된 이현은 ‘이현, 꿈의 날개를 달다’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동동동작은음악회, 푸른길공원 융합페스티벌, 충장축제, 동구 마을문화예술공동체 한마음축제 등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10-5184-863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일상 이야기 아이들 눈높이 맞춰 정갈한 언어로 그려

광주일보 신춘문예 정혜진 작가
장편동화 ‘달꽃을 품은 엄마’ 펴내

전남여류문학회 회장을 역임한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정혜진 동화작가가 장편 ‘달꽃을 품은 엄마’(가꿈)를 펴냈다.

저자는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동시 ‘봄비’와 ‘내 가슴엔’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의미 있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이번 작품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를 하늘 세상으로 떠나보낸 희수의 이야기다. 먼 여행길을 떠난 엄마는 은하수 강가에서 반짝이는 별꽃이 된다. 그러다 아이들이 그리우면 우주에서 날아온 까치가 되기도 하고 밤하늘에 핀 달꽃을 품기도 한다.

그러나 희수는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힘든 어려움을 겪는다. 동생을 지키며 꿋꿋이 참고 이겨 나가지만 한편으론 엄마가 그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다. 그래도 희수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언니가 있어서 힘든 어려움을 잘 참아낸다.

작가는 주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갈한 언어로 풀어낸다. 독자들로 하여금 희수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편에 드리워져 있다.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삽화는 정겨우면서도 맑은 기운이 넘친다. 삽화를 그린 양채은 작가는 성균관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으며 ‘아, 명랑대첩’ 등의 작품에 그림을 그렸다.

정 작가는 “꿈을 키워 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희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어린이를 비롯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 희수에게 용기를 주는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작가는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동시문학상, 전남도문화상, 불교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동시집 ‘짝꿍 사다리’ 등 17권의 작품집과 동화집 ‘별꽃 엄마 ’ 등 6권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직 혁신과 경쟁력 확보
광주비엔날레 미래혁신위 가동

조직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광주비엔날레 미래혁신위원회가 가동됐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각계각층 21명으로 구성된 미래혁신위원회를 16일 발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연직인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와 함께 위원장을 맡을 공동위원장으로 지형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미래혁신위원회에서는 광주비엔날레의 예술 관광 상품화와 이를 위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광주 전역의 축제화, 지역 인재 육성 역할, 지역민과의 소통 및 광주비엔날레만의 차별화 방안, 관람객 친화적인 전시 구현, 지역성과 국제성의 조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으로는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연 전시부장(광주비엔날레 직원 대표),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한국메세나협회 회장, 승효상 이로재 대표 등 21명이 참여하며 임기는 1년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9일 ‘광주 골목길 재발견’ 포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광주는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시다. 자고 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골목들이 사라질 만큼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실핏줄’인 골목길을 지켜내기 위한 의미 있는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과 광주시문화원연합회는 19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도시의 실핏줄, 광주 골목길의 재발견’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승욱 문화예술플랜비 대표가 ‘문화예술과 커뮤니티 (깡깡이 예술 마을의 사례)’ 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한다. 이 대표는 발제문에서 “골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 재생의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삶의 질 향상의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토론자로는 김봉국 디자인씽커스 대표, 전고필 이목구심서 대표, 광주시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이 나선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